

杏雨書屋藏古卷子本『太素』卷二十一 및 二十七의 繁字

日本内經醫學會¹ ·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²

左合昌美¹ · 金恩瑕² *

杏雨書屋藏古卷子本『太素』卷二十一および二十七の翻字

左合昌美¹ · 金恩瑕² *

日本内經醫學會¹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²

仁和寺本『太素』は影印されて流傳することすでに二十餘年であるが、その中の卷二十一、二十七および若干の斷簡は、實際には摹寫本の影印であった。摹寫は極めて精巧であるから、一般に内容を理解するうえで基本的に問題は無いと考えられてきた。ところが最近になって影印發行にともない、卷二十一および二十七の活字化を擔當して、眞物を詳しく研討した結果、“基本的に問題が無い”ということと“完全に問題が無い”ことの間にはかなり大きな違いが有ることを痛感した。よって最近の研究結果を紹介し、杏雨書屋藏古卷子本『太素』影印の價値を廣く知らしめたいと思う。

Key Words : 太素, 杏雨書屋藏古卷子本



唐初の 楊上善이 撰注한『黄帝内經太素』는 이미 분

* 교신저자 : 김은하.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Tel: 053) 770-2240, Email: ehkim@kyungsan.ac.kr
접수일(2008년 10월 24일), 수정일(2008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2일)

실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런데 19세기 20年代(1820~1829)에 걸쳐 日本·京都의 仁和寺 書庫에서 古卷子本(권자본: 두루마리책)이 發見되었다. 즉 所謂 “仁和寺本”이다. 이것을1981년에 日本·大阪의 오리엔트 出版社(當時의 名稱은 東洋醫學研究會)가 影印出版했다. 이후로『太素』의 研究는 이 影印本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現在의 古卷子本『太素』의 一部分, 즉 卷二十一과 二十七은 實際로는 仁和寺가 아니고 武田藥品의 杏雨書屋에 소장되어 있다. 오리엔트 出版社가 影印出版했을 때에도 당연히 杏雨書屋藏本을 利用할 것을 希望하였으나, 杏雨書屋側의 여건 때문에 實現될 수 없었다. 따라서 最近까지 우리들이 仁和寺本 卷二十一·二十七의 影印으로 취급해 왔던 것은 實際로는 1918年(大正7年) 에 仁和寺에서 사람을 派遣하여 民間에 流出된 卷子와 斷簡을 臨摹(문자의 형태나 필법에 담긴 作家的 뜻을 배우기 위해 그대로 흉내내어

쓰는 것)한 것(以下에서는 大正摹寫本이라고 簡稱함)의 影印에 지나지 않는다. 그 摹寫는 매우 精巧하며 일반적으로는 이 本에 依據하여도 『太素』의 內容을 理解하는데는 基本的으로 問題는 없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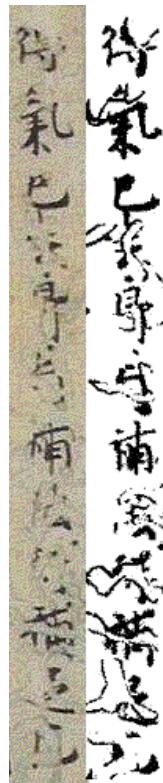
그런데 最近에 杏雨書屋(<http://www.takeda-sci.or.jp>) 所藏의 卷二十一·二十七을 影印出版하게 되어 그 活字化의 作業을 우리 日本內經醫學會가 擔當하게 되었다. 2005年 여름 小曾戶洋氏(解題擔當)가 젊은 研究者들을 引率하여 杏雨書屋을 訪問하여 見學할 機會에 즈음하여 宮川浩也·荒川綠과 내가 同行하여 친히 古卷子本『太素』眞物을 調査했다. 그 結果, “基本的으로 問題가 없다”라는 것과 “완전히 問題가 없다”라는 것의 사이에는 深淵이 存在함을 痛感하며 影印과 活字化의 必要性을 새삼스럽게 認識하게 되었다. 作業은 이미『太素』의 電子文書化를 일단 끝냈던 내가 電子的으로 쓰여져 나온 注釋을 붙인 것을 기본으로 하여 宮川浩也·荒川綠 및 내가 再研討하는 형태로 進行하였다. 發行日은 2007年 4月 6日이며, 非売品으로 限定 300部였다.

지금 이 機會를 빌어서 卷二十一 및 卷二十七에 대한 몇몇의 問題에 대하여 例를 들어 紹介하여 杏雨書屋藏古卷子本『太素』影印의 價値를 天下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생각한다(두 자리의 數字는 卷數, 세 자리의 數字는 各卷에 있는 行數를 나타낸다).

21-045九鍼要道“去如絕絃”의 楊上善注

이 部分은 原鈔의 剝落(벗겨지고 떨어짐)이 심하여 확실하게 判讀하기 어렵다. 그런데 『缺卷覆刻太素』(古醫典 모임이1964년 발행함. 正文校定은 石原明)는 “得氣已去即此補陰□補得之”云云으로 되어 있으나 最近에 中國에서 出版된 활자본 『太素』에서는 각각 다른 判斷을 하고 있다.

王洪圖·李雲增補點校인『黃帝內經太素』(科學技術文獻出版社2000)는 “得氣已去, 即止補泄, 其補泄已”云云으로 되어 있다. 校注에 仁和寺本이 “泄”을 “世”로 쓴 데에는 傳瀉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되리라. 애초에 唐太宗의 諱를 피해서 “泄”은



“洩”로 쓰여졌을 것이다. 2005年의 修訂版에서는 “洩”에 새삼스럽게 어떤 注記도 달지 않았다.

李克光·鄭孝昌主編의 『黃帝內經太素校注』(人民衛生出版社2005)는 “得氣已去, 即此補陰, □補得之也”云云으로 되어 있으며 校注中에 “仁和寺本の「補」위에 빠진 글자가 「待」字와 비슷하게 쓰여졌으며, 「補」의 아래에는 「得」字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해이다. 『缺卷覆刻太素』는 『黃帝內經太素校注』가 “之”字를 “得”으로 判斷하였으며, “也”字를 “之”로 判斷한 것이라고 한다.

錢超塵·李雲校正의 『黃帝內經太素新校正』(學苑出版社2006)은 “得氣已多, 即與補洩, 行補洩已”云云으로 되어 있다. “得氣已”의 아래, 殘形을 자세히 살펴보면 “多”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大正摹寫本도 역시 “去”이다. 王洪圖·李雲增補點校本의 修訂版도 “多”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에 대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眞物을 仔細하게 보니 “得氣已去即□補□□補足□”까지는 거의 확실하다. 즉 아래에서 두 번째가 “旦”(『干祿字書』에 “足”과 통합)인 것은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생각컨데 問題의 部分은 「得氣已去, 即行補法, 行補足已」가 아닐까. 단지 例로서 이 句가 漢語로서 精確한 것인지 자신이 없다. 漢語를 모국어로 하는 同學의 意見을 구하고 싶은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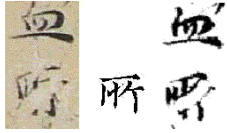
21-052九鍼要道“屬意病者”의 楊上善注

楊注前半“念其鍼下”에 異議는 없다. 後半은 좀이 심하게 쓸어서 大正摹寫本에서는 判讀이 곤란하다. 『缺卷覆刻太素』는 “病无耶也”로 되어 있으나, 眞物을 仔細히 보면 「病之耶



氣」의 四字인 것이 판가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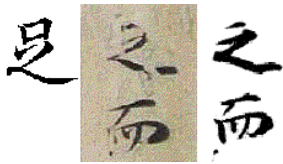
21-056九鍼要道“血脉在輸橫居”



大正摹寫本은 “脉”을 잘못하여 “所”으로 썼으나『靈樞』九鍼十二原篇은 “血脉”으로 썼으며, 楊注에도: “血脉, 脉脉也”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잘못은 쉽게 是正할 수 있다. 眞物을 檢證하면 大正摹寫本이 誤寫한 原因도 확실하다. 瘡이 쓴 것 때문에 “所”의 俗字와 매우 닮아있다.

大正摹寫本은 “脉”을 잘못하여 “所”으로 썼으나『靈樞』九鍼十二原篇은 “血脉”으로 썼으며, 楊注에도: “血脉, 脉脉也”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잘못은 쉽게 是正할 수 있다. 眞物을 檢證하면 大正摹寫本이 誤寫한 原因도 확실하다. 瘡이 쓴 것 때문에 “所”의 俗字와 매우 닮아있다.

21-063九鍼要道“無損不足而益有餘”



大正摹寫本은 “足”을 잘못하여 “之”로 썼다. 이 字도 『靈樞』九鍼十二原篇을 檢閱하면 그 錯誤는 一目了然하다. 原鈔에서 “足”은 “足”이라고 쓰여지는데 이것이 “之”로 誤寫된 原因이다. 이 字의 上部에 瘡먹은 것이 있다.

大正摹寫本은 “足”을 잘못하여 “之”로 썼다. 이 字도 『靈樞』九鍼十二原篇을 檢閱하면 그 錯誤는 一目了然하다. 原鈔에서 “足”은 “足”이라고 쓰여지는데 이것이 “之”로 誤寫된 原因이다. 이 字의 上部에 瘡먹은 것이 있다.

21-098九鍼要解“惡知其原者”云云한 楊上善注



『缺卷覆刻太素』는 “先知何注有病之微”云云으로 쓰여져 있으나, 眞物을 仔細히 檢閱하면 이 中の “注”라고 보여지는 文字의 左邊은 “灑”와 닮았고, 右邊은 “灑”과 닮았다. 즉 “經”(或“經”·“經”) 字라고 생각해야 한다. 大正摹寫本에서는 거의 “注”字와 닮았다. 『黃帝內經太素校注』가 “注”字는 “經”字로 고쳐야 한다고 한 것은 옳다. 다만 “仁和寺本作「經」”은 의심스럽다. 그들이 眞物을 볼 機會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黃帝內經太素新校正』은 “涇”으로 보고 “經”字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缺卷覆刻太素』는 “先知何注有病之微”云云으로 쓰여져 있으나, 眞物을 仔細히 檢閱하면 이 中の “注”라고 보여지는 文字의 左邊은 “灑”와 닮았고, 右邊은 “灑”과 닮았다. 즉 “經”(或“經”·“經”) 字라고 생각해야 한다. 大正摹寫本에서는 거의 “注”字와 닮았다. 『黃帝內經太素校注』가 “注”字는 “經”字로 고쳐야 한다고 한 것은 옳다. 다만 “仁和寺本作「經」”은 의심스럽다. 그들이 眞物을 볼 機會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黃帝內經太素新校正』은 “涇”으로 보고 “經”字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또 “微”라고 여겨지고 있는 文字는 原鈔에 가깝

고 그것을 『干祿字書』에 “微”와 통한다고 실려있으나, 抄者는 確實히 “微”이라고 풀어야 할 곳, 예를 들면 卷十一變輸의 “其音微”에도 여기와 같은 字形을 쓰고 있다.

따라서 問題의 楊上善注는 “先知何經有病之微”라고 푸는 것이 바를 것이다.

21-185諸原所生“五藏有六府六府有十二原”의 楊上善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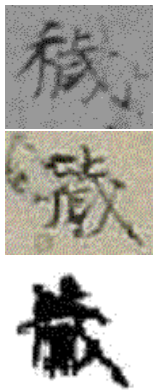


이 단에는 많은 問題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모두를 논할 여유가 없다. 일단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行氣故五藏第一輸 故第三輸名原”은 眞物을 보면 “行氣放五藏第三輸. 故第三輸名原”인 것 같다. 이것으로 모두 解決된 것은 아니지만, “第三輸로 어떻게든 되므로, 第三輸을 原이라고 이름붙인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처럼 “第一輸로 어떻게든 되므로, 第三輸을 原이라고 이름붙인다고 하는 것은 確實히 이해가 안 된다.

또 “放五藏”의 “放”字의 위에는 比較的 큰 空白이 있다. 그래서 나는 “放”字는 다른 字의 上部가 깨어진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干祿字書』에는 “發”字의 俗字인 “𠂔”을 “业”로 바꾼 것을 실었다. 또한 한쪽에 있는 “弓”과 “方”은 相似하다(放. 發). 현재 原鈔中에서는 “弓”旁은 많은 경우 “方”旁에 쓰여져 있다. 만약 이 字를 “發”이라고 假定한다면, 이 句는 “行氣가 第三輸에서 發하므로, 第三輸를 原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이 되어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

21-204諸原所生“猶汚也”의 楊上善注

『缺卷覆刻太素』는 잘못되어 “五志藏神其猶汗也”로 되어 있다. “汗”은 “汗”의 잘못이며, “汗”와 “汚”는 같다. 이 字의 解釋에는 아무 어려운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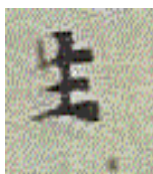
本句中の“藏”字에 대해서는 參考할 例를 들어 討論한다. 卷三·陰陽大論 “故壽命無窮，与天地終，此聖人之治身也”의 楊上善注에 “虚无守者，其神不擾，其性不穢”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穢”字 “五志”의 아래의 字(藏)와 같다. 이 文字에는 若干의 剝落이 있기 때문에 大正摹寫本의 文字는 다른 “藏”字(正字는 “藏”)와 비슷하다. 그러나 眞物을 參照하면 확실히 “穢”字이며 조금도 의심할 곳이 없다. “五志穢神，其猶汚也”이다.

27-104十二耶“此陰氣盛而陽氣虛，陰氣疾而陽氣徐，陰氣盛，陽氣絕，故爲唏。”의 楊上善注



“火几反，笑也”의 “火”를 大正摹寫本은 “大”로 쓰여져 있다. 『黃帝內經太素新校正』도 “『大』爲『火』로 잘못 썼으며， 蕭本에는 『唏，火几反.』”라고 하나， 眞物을 보면 원래 “火”로 쓰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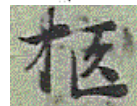
27-123十二耶“心者，五藏六府之主也”의 楊上善注



“涕泣出之所以有三，心者神用，藏府之主，一也.”의 “主”에 대해서 『黃帝內經太素新校正』은 “原鈔初作『生』，抄校者改作『主』，以小字注於其右，今從之.”

라고 말하나， 新校正이 말하는 原鈔은 大正摹寫本이다. 摹寫를 한 사람이 最初로 잘못 기록한 後에 알아 차리고 注記한 것 같다. “生”의 第一筆이라고 보았던 것은 眞物을 仔細히 보면 단순히 더러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眞物에 右傍의 注記 등은 없다.

27-314耶傳“入則柩深”云云， 또 楊上善注“柩，久也.”



杏雨書屋藏의 眞物에도 “柩”(木部가 手部처럼 쓰여지는 것은 原鈔 전반에 걸친 習慣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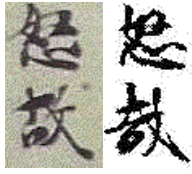
다) 로 쓰여졌으나， 上欄線外에 “丁礼反，久也”의 抄校者에 의한 朱書가 있다. 大正摹寫本의 影印에도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다지 注意하지 않았다.

『玉篇』角部에 “觥，丁礼切，觸也，或作抵”라고 되어 있다. 즉 抄校者는 이 字가 “抵”인 것을 알고 있었을 可能性이 높다. 『黃帝內經太素新校正』은 “楊上善未能 辨識”이라고 하나， 抄校者가 이 文字의 正體를 알고 있었다면， 楊上善이 몰랐을 리가 없다. 단 쓰여진 文字의 形은 俗體 “扭”·“扭”보다도 더욱 망가져 있어서 “柩”에 가까워졌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楊上善注의 “至也”는 어떠한가? 實은 “久”가 아니고 “久”(등글월[문])이 아닐까? 『說文解字』에 “久，從後至也”라고 되어 있다. 卷八·經脈連環 “抵伏菟”의 楊上善注에는 “抵，至也，丁礼反”이라고 注釋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약간 고쳐서(뒤에서 다다른) “久也”라고 注釋하면 어떨까? 다만 “久”를 文字의 構成要素 以外에 사용한 例는 그다지 없는 듯하다. 혹은 이것도 實은 “至”일지도 모른다. 『敦煌俗字典』(黃征 上海教育出版社2005)에 실린 “至”의 俗字는 생각지 않게 “久”와 닮았다. 혹은 또 『廣雅』釋詁一에서는 “及”도 “抵”도 “至也”라고 한다. 앞에는 “抵，至也”라고 하며 여기에서는 “抵，及也”이라고 했을 可能性도 있는 듯하다.

27-376耶傳“忿怒傷肝”의 楊上善注“肝主於怒，故多怒傷肝也.”

杏雨書屋藏의 眞物은 “故”로 되어 있다. 그 筆勢를 잘못 大正摹寫本은 거의 “哉”로 잘못쓰고 있다.



그래서 『黃帝內經太素新
校正』은 吉에 女을 쓰지만
원래 不必要한 努力이다.
또한 眞物에는 “怒”字的
右下에 小朱點이 있어 句

讀을 指示하고 있다.

卷二十一·二十七의 活字化 作業을 통하여 판단
된 것은 아직도 여러 개가 있으나, 우선 이 정도의
예를 든 것만으로도 杏雨書屋藏古卷子本『太素』影印
의 價値는 充分하리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기타>

1. <http://www.linglanzishi.info/lounge/>

